

종교교육학연구 제19권. pp.111~137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12

마음공부와 상담 - 원불교 교화 상담을 중심으로 -

金 成 長
(원광대학교)



마음공부와 상담은 한국적 문화 전통과 불교적 사유에 바탕한 상담론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원불교를 중심으로 마음공부 상담에 의한 정신치료 성공 사례들이 한국 사회에 관심을 끌고 있다. 마음공부와 내담자 중심의 비지시적[非指示的] 상담 원리는 서로 그 근본 바탕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상담 전개 과정에서 내담자가 잠재적 자아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신뢰함으로써 긍정적 자아를 발견하는 진실한 자기 자신으로 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이 된다. 즉 자기 자신의 불성을 발견하여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나아가서 내가 곧 부처라는 자기의 진실을 회복하면 모든 문제는 스스로 해결될 수 있다는 마음공부 과정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종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공부와 상담을 통하여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있다.

핵심 주제어: 마음공부, 교화상담, 원불교, 비지시적 상담, 자아개념의 변화



I. 서 론

정신 치료의 수단이나 방법은 크게 치료자의 인격과 치료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치료자의 인격과 치료 기법은 본말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치료자의 인격이 근본이고 치료 기법은 그 끝이다.¹⁾

* 이 논문은 원광대학교 2002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논문입니다.

1) 이죽내, <노장사상의 수도와 정신 건강>, 정신치료학회 제1차 학술 연찬회논문, 2004, 32쪽.

상담 기법 중심의 상담론이 생활 태도와 인격 변화를 목표로 하는 현대인의 정신 치료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종교 상담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목회 상담은 유일신(唯一神)적 종교 중심이기 때문에 도(道) 지향적 종교 상담론과는 그 출발점부터 다르다.

종교 상담론의 입장에서 볼 때 서양 종교는 비교적 밖으로 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동양 종교는 안으로 자기 마음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이 현저한 특징이다. 서양 종교는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경전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반면에 동양 종교에서는 진리가 마음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본래 마음의 이치를 깨닫기 위하여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마음의 이치를 깨달으면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알게 되고, 완전한 인격의 성인이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동양과 서양은 종교적 태도의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교 상담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그 배경과 목표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신치료학회 이동식은 “서양 정신치료는 19세기 말에 무의식의 발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동양에서는 그보다 2500년 이상 전부터 의식은 장식(藏識)에 저장되어 있어서 투사되어 나온다는 것이 확립되었고, 치료도 이 장식을 정화하는 작업인 수행, 즉 자기 마음을 보고 애응지물(碍應之物)을 제거함으로써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신 치료자는 서양의 정신 치료가 도로 접근해오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서양 정신 치료가 가고 있는, 가야 할 길을 밝혀주고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자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수도와 정신건강60]

동양과 한국에서 마음은 항상 도(道)의 근원이며 본질이었다. 마음을 잘 닦고, 잘 쓰고,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궁극적 삶의 목표였다. 이러한 과정이 마음공부이며, 우리에게 마음공부는 삶의 철학이며 인생 그 자체였다.

마음공부와 상담은 한국적 문화 전통과 불교적 사유에 바탕한 상담론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원불교를 중심으로 마음공부 상담에 의한 정신치료 성공 사례들이 한국 사회에 관심을 끌고 있다. 불교 혹은 원불교적 상담론으로서 마음공부 상담론은 한국적 문화와 정서에 맞는 새로운 상담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원불교 교화 상담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도 원불교 교화 상담에 대한 연구나 마음공부는 이해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일반적 이해로부터 논리를 전개하여 원불교적인 마음공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앞에 소개하였다. 상담 이론은 인간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원불교의 교리 체계에서 인간관을 살펴보고, 마음공부의 원리와 실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논문은 그 동안에 필자가 발표한 여러 편의 관계 논문들을 참고하였으나 지면

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썼다는 한계를 밝혀둔다.

II. 상담과 마음공부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상담의 개념

상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²⁾

Wrenn과 Burks와 Rorgers 등의 상담 개념에 대한 공통적인 뜻을 정리하면, 첫째 상담이란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어떻게 주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의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따른다. 일반적으로 상담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학습하게 하는 과정으로 본다.

둘째, 상담의 기본적인 요소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대면 관계이다. 상담에서 대면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보통 인간 관계와는 달리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두터운 신뢰감이 필요하며, 신뢰감의 유지 없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 내담자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두 사람의 신뢰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셋째, 상담과 심리치료 사이에 큰 차이를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다만 둘 사이의 특징은 목표 면에서 보면, 상담은 주로 교육적, 예방적, 발달적인 데 두고 있으며, 심리치료는 적응적, 교정적, 치료적인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

또한 Williamson은 이성적 지시적 입장에서 상담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했지만 <상담이란 인간 발달 문제 및 이러한 발달은 촉진시키는데 상당한 경험을 가진 스승과, 발달하는데 어떤 장애를 가진 학습자 사이에 맺어진 단기간의 특수한 인간 관계>로 보고 있다. 그는 상담을 교육과 직업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발달에로 확대시켰다.

Albert Ellis는 1950년대에 합리적 정서적 상담론을 발전시켰는데, 그 이론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낙관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은 왜곡되고 부정확하고 특히

2) 박성수정원식, 《카운셀링의 원리》, 교육과학사, 1984, 29쪽.

3) 전찬화, 대학카운슬러 연구협의회, 《상담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1998, 2-5쪽.

비합리적 사고 형태에 의해서 자신을 형성하게 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치료자들의 근본적인 과제는 내담자들의 사고 형태를 교정하여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바꿈으로써 정신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데 있다.⁴⁾

Eric Burne이 창안한 교류분석이론에서도 인간의 긍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치체계 위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개념은 Paul Tillich의 〈수용된 대로의 자기 수용(Accepting yourself as accepted)〉이란 개념과 동일하다. 이는 곧 인간 존재의本性회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류분석이 의미하는 치료란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긍정성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성을 극복하고, 각본에 의해 고정된 삶을 자발적인 자유와 책임으로 다시 결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발성을 통한 인간 해방이 바로 새로운 결단을 통한 인간 성장이다.⁵⁾

상담을 동양적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시각도 있다. Alan Watt는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 힌두교 등은 서양적 개념으로는 종교도 철학도 아니고 정신치료라고 했다. Max Hammer는 정신치료에는 체계가 있을 수 없고 동양의 명상, 즉 수도인 정신요법(Quit Mind Therapy)이 정신치료의 극치라고 했다. Herbert Fingerette는 서양의 정신분석 치료의 성과와 과정이 도(道)의 성과와 과정상에 중요한 점에서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이데거와 더불어 20여년간 함께 세미나를 계속했던 현존재분석(現存在分析)의 최고 권위자인 Medard Boss는 최선의 서양 정신분석 수련도 마음을 밝힌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입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갈파하고 있다.⁶⁾ 이와 같은 견해는 결국 수도와 정신 치료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부적응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격적 성숙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마음공부와 상담에서 상담의 개념 정립은 앞으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으나, 원불교 교화 상담으로서 마음공부 상담은 대체적으로 비지시적 상담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필자의 연구를 종합하면 마음공부 상담의 특징은 내담자나 상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함께 마음공부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담자는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마음공부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상담자는 마음공부하는 자세로 상담 과정에 임한다고 할 수 있다. 원불교 교화 상담 원리가 다른 상담론과 비교해서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과정에 있어서 내담자와 상담자는 함께 마음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교류를 통하여 마음공부로 문제를 해

4) 김부길, 대학카운슬러 연구협의회, 《상담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1998, 55-56쪽.

5) 김성장, 〈마음공부와 상담〉, 《학생지도연구》 제 12호, 원광대 학생지도연구소, 1991, 62쪽.

6) 이동식, 〈상담의 동양적 접근〉, 대학카운슬러 연구협의회, 《상담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1998, 317-318쪽.

결한다는 것이다. 교화 상담의 원리는 바로 마음공부이다.⁷⁾

2. 상담자의 역할과 목표

상담자의 역할에 대하여 초보적인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대답을 주어야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상담자들의 이와 같은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러한 생각은 결과적으로 내담자들을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된다. 상담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내담자들이 독립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데 있다.

상담자의 역할은 상담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지시적 상담이론은 정확하고 개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시적 상담론은 상담자의 지시적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내담자의 독립적 결정을 경시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합리적 정서적 심리치료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지각(知覺)과 사고를 재교육시킴으로써 비논리적 사고, 정서와 행동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 행동의 인지적(認知的)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사고와 신념이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고, 상담에 있어서 합리적 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Skinner를 중심으로 한 행동적 상담이론은 관찰 가능한 행동이 주된 관심사이며, 인간의 행동이란 학습된 것이라는 견해이다.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적응적 행동을 학습하여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⁸⁾

정신분석적 상담이론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동적인 힘의 근원은 무의식에 있으며, 무의식적 갈등이 부적응 신경증 내지는 정신질환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과 그때그때의 감정들을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털어놓도록 격려한다. 처음에는 주로 듣는 데에 치중하면서 가끔 해석을 해준다. 특히 내담자가 나타내는 심리적 저항에 관심을 가지며,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서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인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함으로써, 내담자가 보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 대하여 솔직해지도록 도와준다.

상담의 목표에 대하여 Rollo May는 〈개인 상담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 사이의 깊은 이해〉라고 하였다.⁹⁾ 즉 그는 상담 과정 전체의 종결과 목표를 인격 변

7) 김성장, 〈정산종사와 교화상담〉, 《원불교사상》 제15집, 원불교사상연구원, 1992. 〈소태산의 교화상담 원리와 실제〉, 《원불교사상》 제17. 18합집, 1994. 참고.

8) 박성수·정원식, 《카운셀링의 원리》, 교육과학사, 1984, 62-81쪽.

형에 두었다. 그것은 내담자의 문제 원인이 인격 내부의 긴장 갈등 등의 부조화에 있기 때문이다. 이 부조화는 내담자의 인생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잘못된 태도는 수정되어야 하고 이런 수정에 의하여 그 긴장들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인격의 변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인격에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를 자유롭게 하여 자기 자신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것은 내담자에게 자기 인격의 변형이라는 이른바 자기 자신의 과제를 제시할 단서를 준다는 것이다.¹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인격은 충고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고, 중요한 결단은 모두 결국 내담자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격 변형의 요인은 이해의 창조적 기능으로 문제 이해 자체에 의해서 내담자의 인격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셋째, 인격 변형의 수단은 공감적인 상담 관계에서 생기는 감화력이다. 넷째, 인격 변형의 요인은 고통의 이용이다. Jung은 〈인간의 모든 정신적 진보 및 정신적 창조성은 정신적 고통의 상태에서 생긴다.〉¹¹⁾고 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고통을 제거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이 고통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도록 해야한다.

3. 마음공부

마음공부는 원불교 교화 정신의 표상이다. 원불교 교리 정신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마음공부’라고 할 수 있다. 원불교의 궁극적 관심인 ‘일원상(一圓相) 진리’에 합일해가려는 신앙문(信仰門)과 수행문(修行門)이 마음공부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원불교 기본 교리인 《원불교 정전》수행편 〈정기(定期)훈련과 상시(常時)훈련〉에만 공부라는 용어가 무려 18번이나 중복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원불교 교도를 일반적으로 공부인이라고 부르는 관행에 익숙해져 있다.

원불교 교조 소태산 박중빈(少太山 朴重彬 1981-1943) 선생은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¹²⁾고 하였으며, 이 마음 쓰는 법이 바로 마음공부이다.

천하에 벌어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9) Rollo May, 이봉우역, 《카운셀링의 기술》, 분도출판사, 1987, 111쪽.

10) 앞의 책, 140-141쪽.

11) C. Jung, 《Mordern Man in Search of a Soul》, 260쪽.

12) 《대중경》, 교의품 29.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 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用心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善用)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이다.> 13)

사리연구(事理研究) 훈련 과목 가운데 의두(疑頭)와 성리(性理)가 있다. <의두는 대소유무(大小有無)의 이치와 시비이해(是非利害)의 일이며 과거 불조(佛祖)의 화두(話頭)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함이요, 성리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自性)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함> 이다. 특히 <종교의 문에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이는 원만한 도가 아니니 성리는 모든 법의 조종이 되고 모든 이치의 바탕이 되는 까닭> 이다. 이 의두와 성리가 일원상 진리를 깨달음의 대상으로 하는 마음공부이다.

생활 속에서 하는 공부법으로 사사불공(事事佛供)과 무시선(無時禪)이 있다. 사사불공은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法身佛)의 응화신(應化身)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 이기 때문에 일마다 불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시선은 곧 <천만경계 중에서 동(動)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大法)> 으로 일이 없으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이 있을 때는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생활 속의 수행 공부이다.¹⁴⁾ 이 사사불공과 무시선이 마음공부이다.

일원상(一圓相) 서원문(誓願文)에 <법신불 일원상을 체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事理)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體性)에 합하도록 까지 서원함> 도 마음공부이다.

그리고 소태산의 뒤를 이어 원불교의 종법사가 된 정산 송규(鼎山 宋奎 1900-1962) 선생도 <마음공부 잘하여 새 세상의 주인 되자> 고 강령을 세워 특히 마음공부를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소태산과 정산으로 이어지는 원불교 교화 정신의 표상은 ‘마음공부 잘하자’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공부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도와 성불제중에 대한 서원을 세우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신앙하고 수행하는

13) 《대종경》, 교의품 30.

14) 《정전》, 제 3 수행편, 무시선법.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론으로서 마음공부는 마음 쓰는 공부인 용심법(用心法)과, 도(道)와 성불제중의 서원을 향한 마음공부 과정이 그대로 상담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을 보면 1, 2, 3, 6조가 상담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불교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심으로 살다가 교당에 오게되면 마음공부 상담을 통하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화하고 있다.

1. 상시 응용 주의 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解悟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返照)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¹⁵⁾

무시선(無時禪)과 사사불공(事事佛供)의 정신은 일상생활 그 자체를 공부 삼게 함으로써, 삶 자체를 선이요, 불공이요, 마음공부로 보는 것이다. 진리와 불법과 도가 말은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니, 인생과 생활상의 모든 문제를 마음공부를 통하여 도로써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공부의 원리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 원리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상담 전개 과정에서 내담자가 잠재적 자아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신뢰함으로써 긍정적 자아를 발견하는 진실한 자기자신으로 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자신의 佛性을 발견하여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나아가서 내가 곧 부처라는 자기의 진실한 자성(自性)을 회복하면 모든 문제는 스스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음공부 과정과 같다.

성공적인 상담은 자아개념의 변화라고 할 때, 마음공부 교화 의미도 상담과정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교화의 의미는 바로 마음공부를 통하여 생활 변화와 인격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일상적 삶을 성스럽게 승화시키려는 종교적 성자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한다.

15) 《정전》, 제 3 수행편, 제 2장 제 2절 2.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Ⅲ. 원불교 교리 체계에서 인간관

1. 마음이 곧 부처님

원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님이니 모든 사람을 불성(佛性)이 갖추어 있는 부처님으로 본다. 《정전》 교리도(敎理圖)에서 보면 〈一圓은 法身佛이니 우주 萬有의 본원이요 諸佛諸聖의 心印이요 일체 중생의 本性〉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원은 법신불로서 진리불이요, 우주를 총섭하는 전체불로서 우주만유의 비릇이요, 불보살 성인들의 마음의 빛이요, 우리의 본성이고 본 마음이다. 즉 일원은 우리들의 본성이니 ‘心佛 一圓相’이다.

모든 부처님들은 한 마음의 이치를 깨달아 그 이치를 밝히고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처님이 되었다. 따라서 부처와 중생의 차이란 단지 한마음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요, 아직 깨닫지 못한 분이 중생이니 중생과 부처님의 본성은 원래 같다는 것이다. 본성은 우리의 자성(自性)이니 그 자성을 깨달아 부처님이 된다면 마음은 곧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원래 전지전능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마음 부처님도 전지전능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부처님이다. 그러므로 소태산은 최초로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할 때 ‘心佛 一圓相’이라고 하였다.

소태산의 깨달음의 원리는 부처님이나 우리의 본 마음이 다 같은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일원상 법어(法語)’와 ‘일원상 서원문’에서도 일원은 제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라고 밝히었고, 일원상 서원의 궁극적 목표는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體性)에 합하자는 것이다.¹⁶⁾ 일원의 위력을 얻는다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며, 일원의 체성에 합한다는 것은 본래 공(空)한 본성에 합일하여 마음의 빛을 회복한 성불의 경지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견성성불(見性成佛)이며, 우주와 인생의 도리를 통했다는 뜻으로 도통(道通)이라 하였으며, 통만법 명일심(通萬法 明一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심불(心佛) 일원상(一圓相)의 교리 체계로 본 소태산의 인간관은 마음이 곧 부처님이라는 바탕 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불성을 가진 인간은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2. 보은(報恩) 상생자

원불교 교리 체계는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四恩)과 수양(修養) 연구(研究) 취사(取捨)의 삼학(三學)으로

16) 《정전》, 제 2 교의편 제 1장 제 4절 일원상 서원문.

써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다.¹⁷⁾ 이러한 사은의 신앙적 의미에서 생각할 때 소태산의 인간관은 보은 상생자(報恩 相生者)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원불교 신앙은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만물·허공·법계가 다 부처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 ¹⁸⁾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원상 진리와 인간과의 관계를 사은(四恩)을 통하여 은적(恩的) 관계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사은과 인간과의 관계는 ‘없어서는 살수 없는 관계’로 규명하고 있다.¹⁹⁾ 곧 인간은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피은적(被恩的) 존재로 보고 있다. 은혜 입은 인간은 우주의 생성 변화의 원리인 인과보응의 법칙상 은혜 받은 원리대로 보은하게 되어있다. 우주는 그 전체가 은혜의 큰 덩어리로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상생은(相生恩)으로 모든 존재들끼리 관계되어 있다.

인과보응의 사은 신앙에서, 사은은 우주에 가득찬 상생은이며, 우주의 생성 원리라고 전제할 때, 우리 모든 존재자는 상생은으로 피은된 은혜의 덕택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은된 도를 따라 보은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당연한 인과의 법칙이니, 보은할 때는 상생으로 보은하게 되어있는 것이 보은 상생적 인과론이다.²⁰⁾

보은 상생적 인과론에서 볼 때 상극의 과보란, 상생으로 피은되고 보은되는 보은 상생의 인과보응되는 순리를 모르고 배은을 하게되면 역리(逆理)를 행한 결과로써 받는 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천지·부모·동포·법물이 근원적으로 나하고 상생은의 관계인데, 어찌다 부모에게 배은을 하였다면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벌을 일시적으로 받을 뿐이지 영원히 상극의 인과로 맺혀 역리로만 살거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들은 근원적으로 은적 관계 속에서 서로서로 은혜 받고 보은하는 보은 상생적 관계이다. 특히 사람은 법신불과 우주 만유의 상생적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니 보은 상생자가 되어야한다는 것은 인과의 순리이다.

17) 《정전》, 제 1 총서편 제 2장 교법의 총설.

18) 《대중경》, 교의품 4.

19) 《정전》, 제 2 교의편 제 2장 사은. 피은의 강령.

20) 김성장, <원불교 仁果論 해석의 諸問題>, 《원불교사상》 제 13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989, 30-31쪽.

3. 깨달음을 향한 공부인

모든 인간은 중생으로 태어났지만 깨달음의 인격 완성을 향해 정진 수행하는 공부인으로 본다.

원불교인들은 매일 새벽 좌선 시간 끝에 독경을 하는데, 그 중에 ‘일원상 서원문’이 들어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체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事理)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으로 되어 있다.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한다는 것은 바로 완전한 성불제중의 깨달음을 의미한다.

‘一圓相 法語’에 <이 圓相의 진리를 覺하면 十方세계가 다 나의 소유인 줄을 알며, -중략- 또는 圓滿具足한 것이며 至公無私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고 하여,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육근(六根), 즉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를 사용할 때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하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공부인의 수행 등급인 ‘법위등급(法位等級)’에는 보통급에서부터 대각여래위(大覺如來位)까지 여섯 가지 등급의 범위가 있다. 이 대각여래위가 모든 공부 수행인의 궁극적 목표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중생으로 태어나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울 때 마음공부하는 공부인이 되는 것이며, 공부인의 목표는 대각여래위를 향한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향한 공부인의 수행 방법으로는 정신수양(精神修養) 사리연구(事理研究) 작업취사(作業取捨)의 삼학병진(三學並進) 수행이 있고, 삼학병진 수행의 방법으로는 무시선(無時禪) 무처선(無處禪) 등이 있다. 또 정기 훈련법과 상시 훈련법을 두어 공부인에게 일본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있다.

IV. 마음공부 상담의 원리와 실제

1. 마음공부 상담의 원리

첫째, 모든 사람은 불성을 지닌 본래 부처님으로 보기 때문에 먼저 마음 부처님을 찾게 하는 것이다.

모든 불보살들의 깨달음의 원리는 통만법 명일심(通萬法 明一心)이다. 그러므로 소태산은 이 뜻을 심불일원상(心佛一圓相)으로 밝혀주었다. 또한 모든 육근 작용의 업인(業因)은 일체유심조 되는 이치에 의하여 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누구나 한 마

음의 이치를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마음만 깨치고 보면 견성(見性)이요, 우주의 원리와 인생의 도를 통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부처님은 마음의 빛으로 전지전능한 부처님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한다. C. Jung 같은 심리학자는 이러한 정신의 잠재 현상과 무의식(無意識)의 근원을 원형상(Archetype)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²¹⁾

마음공부 상담의 원리는 곧 마음이 부처라는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본래 마음을 회복하여 마음 부처님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우리의 참 마음이 부처님이라 누구나 자성불(自性佛)을 깨치기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서원을 심어주어야 한다. 즉 마음 부처님을 찾아라.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가설은 마음공부 상담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마다 불공하는 보은 상생적 삶의 자세로 돌리는 것이다.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應化身)이니 당하는 곳마다 처처불상(處處佛像)이다. 따라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그 당처에 직접 불공하여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 즉 천지에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이고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된다. 이것이 사사불공(事事佛供)이요 무슨 일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정성스러운 삶의 원리이다.

우주 만유와 삼라만상은 서로서로 보은상생의 관계로 되어있다. 인간과 법신불과의 관계는 피은(被恩)의 관계이며, 따라서 인간은 법신불 사은(四恩)의 은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피은적 존재임에 틀림없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피은적 존재자인 인간은 자연의 인과법칙에 의하여 마땅히 보은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리이다. 이러한 순리를 모르고 배은을 한다면 역리를 행한 결과로써 받는 벌이 일시적인 상극의 과보가 되고 고통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은자는 자연의 순리에 의하여 상생의 결과를 얻게된다. 은혜 입음에 대한 보은은 당연한 도리이지만 이러한 순리가 서로서로 보은상생의 결과가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수단으로써 불공이 된다는 것이다.

처처불상의 입장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이 그대로 우리에게 죄복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이므로 그일 그일에 불공하는 것이 틀림없이 성공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곳곳마다 부처님 일마다 불공의 정신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의 원리가 될 수 있다.

셋째, 활불(活佛)의 용심법(用心法)이니 부처님의 심법으로 마음의 운전수가 되도

21) Jolande Jacobi, 홍성화 역, 《용심리학》, 교육과학사, 1885, 49-74쪽 참고.

록 하는 것이다.

불법이 생활이요 생활이 불법이라 불법과 생활은 하나이다. 따라서 생활종교 새 종교는 불법에 끌려 세상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니 불법을 활용하는 활발 즉 산부처가 되자는 것이다. 불법활용의 요지는 용심법이며, 용심법은 내가 내 마음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운전하여 불법을 바르게 운전하는 운전수가 되자는 것이다.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이다. 용심법이 중요한 것은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데 있어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 이 되고,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 이 되기 때문이다.

생활 속에서 불법을 활용하는 용심법으로 내 마음을 잘 쓰면 자연스럽게 생활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생활변화 속에서 모든 일도 순리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인격적인 성숙과 아울러 삶의 질적 차원의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활발의 용심법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고, 상담 치료의 원리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道를 향한 공부심이다.

동양 종교적 입장에서 종교의 본질은 도라고 할 수 있다.²²⁾ 도에 대한 간절한 서원을 세우고 궁극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성으로 일관된 공부심이 필요하다. 공부심이란 마음공부에 바탕하여 공부삼아 살겠다는 삶의 자세와 철학을 이며, 여기서 마음공부의 개념은 종교의 본질을 도로 보았을 때 도를 이루기까지의 신앙과 수행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도가 종교의 본질이고 궁극적 목적이라면 그 도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실존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인간으로 태어난 유일한 보람이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방향로를 모르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에 대한 확고한 서원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도를 이루기 위한 서원을 향해 공부심으로 정진하도록 함으로써 인생 상담의 궁극적 원리로 활용할 수 있다.

2. 마음공부 상담자의 자질

마음공부 상담의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되는 것은 상담자 자신의 인격과 자질이다.

22) 김성장, <원불교의 종교관>, 《원광대학교 논문집》 제 23-1집, 1989, 11-14쪽 참고.

첫째, 신뢰성

상담자의 자질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가 내담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다. 내담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한 효과적인 상담이란 기대할 수 없다. 상담이 개별적인 인간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때, 상호 신뢰와 존경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상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특히 상담에서 대면 관계가 중요하며 내담자가 상담자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자신의 숨김없는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뢰감은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함이 내담자에게 전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신뢰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정산은 탁월한 상담자로서 자질과 인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스승으로서의 제자를 언제나 믿어주고 버리지 말라. 대중이 믿지 않고 버리더라도 끝까지 믿고 버리지 말라.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어 있으므로 언제든지가 제도를 받을 것〉²³⁾이라고 하였다. 대중이 믿지 않고 버리더라도 끝까지 믿고 버리지 않는 그 마음이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내담자에 대한 인격적 신뢰감이다.

한 제자가 과오를 범하여 대중이 추방을 결의하였을 때, 그는 〈불보살은 작은 사람은 키워쓰고 모자라면 만들어 쓰고 장점을 보아 단점을 다스려 쓰며 열번 잘못하면 열한번 용서할 아량을 가져서 먼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없으니 한때의 잘못으로 영생의 범종자를 끊지 말라〉²⁴⁾고 하였다. 열번 잘못해도 열한번 용서하고 먼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영생의 범종자인 불성을 신뢰하였으니, 그와같은 신뢰와 감화력이야말로 최고의 상담자적 자질과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덕성(德性)

상담에서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지 않는 가치 중립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자기 수련이 완성되지 않는 대부분의 상담자들에게선악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가치 중립적 인격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상담 기술의 한계는 바로 상담자의 인격적 한계에서 느낄 수 있다. 참된 인격의 소유자만이 시비를 떠나서 어떠한 잘못이라도 그 뉘우치는 마음의 아픔을 헤아려서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 사람의 진실성을 이해하고 잘못된 일도 너그럽게 감싸주고 따뜻한 가슴으로 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내면의 깊이 있는 영성적 체험을 한 사람만이 느끼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랑이요 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인격적인 덕성은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공감과 감화의 원천으로 상담을 촉진시키는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특히 이 덕성은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적 삶의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상

23) 박정훈, 《한울안 한이치에》, 제 1편 제 8장 30.

24) 박정훈, 앞의 책, 제 1편 제 8장 31.

답자의 품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송정산은 덕성을 원만히 갖춘 훌륭한 상담자였음을 느낄 수 있다. 그는 많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그 많은 제자들이 각기 마음속에 ‘나를 제일 사랑하여 주시겠지’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였다.

6.25 직후 영산에서 마을 사람들이 교중의 벼를 빌리러 오면 후에 아니 갚을 줄 알면서도 조금씩 빌려 주면서 크게 원망이 없게 하여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방비하였다. <세상을 살려면 때로 알고 속는 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산의 어머니가 90 상수를 누리고 계실 때 시자에게 <네가 할머니를 가끔 찾아 뵙고 와서 나에게 그 동정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후 시자는 틈 있는 대로 할머니 댁에 다녀와서 보고를 하였다. 어느 따스한 봄날 할머니께 가니 방문을 열어 놓고 계시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지금이 선달이지?”하고 물으시는 격외의 말씀에, 모시고 있던 청운(呂淸雲)사모와 시자는 부지중 웃음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산 종사께 이러한 말씀을 드렸다. 시자는 정산 종사께서도 웃으실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시었다. “그 방이 차지 않더냐?”

시자는 그 때 대답할 말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성자의 부모를 받드시는 정곡이 것처럼 간절하심을 알고 모골이 송연함을 느끼었다.²⁵⁾

셋째, 정성

상담자의 인간적인 자질 문제에 대하여 C. Rogers는 <한 인간이 명석하고 센스가 있으며 도움을 주려는 의욕만 가지고 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담자로서 적격하다>고 하였다. 이 말은 도움을 주려는 정성과 성실성만 있으면 상담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담자의 정성스러운 태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인 감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바로 상담에 있어서 정성이 능력이다.

5·16 이후 혁명 정부에서 대학 정비를 위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원광 대학도 감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학장을 비롯하여 상당한 수의 교수와 직원들이 전무출신으로서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원들이 감복을 하고 갔다는 것이다. 그 때 정산 종사께서는 병환이 위중하시어 동산 선원에 계실 때인데 문병차 온 분들이 대학 사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위안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다.

이를 들으시고는, “참, 잘했다. 꼭 그래야지.”하시며 기뻐하셨다.

25) 박정훈, 앞의 책, 제 1편 제 9장 24.

그런데, 아무리 반가운 일이라도 한두 차례 들으셔야지 위문하러 온 분들이 차례로 일곱 번째인가를 말씀드려도 그 때마다 처음 들으신 듯 반겨하시었다.

이러한 일을 뵈옵고 있던 한 교무가 사죄었다. “편찮으신데 똑같은 말씀을 어찌 그렇게 다 듣고 계십니까? 들었다 하시고 그만 들으십시오.”

이에 꾸짖어 말씀하였다. “어찌 그다지 속이 없느냐? 그 좋은 이야기라고 힘써 말하는데 내가 들었다고 하면 무슨 기운이 나겠느냐?”

이 하나의 일에서도 몸이 괴로우시다는 생각이나 또 앞에 들은 이야기를 거듭 듣는다는 흔적이 마음에 조금도 없으시었다.²⁶⁾

이와 같이 정성스럽고 성실한 대면 관계는 모든 사람의 기를 살려주고 감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다. 이러한 일화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산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관된 삶의 모습이었다.

3. 마음공부 상담의 실제

마음공부 상담의 사례로 원불교 교조 박 소태산(朴重彬 少太山 1891-1943)과 그의 수제자이고 법통을 이어 2대 종법사였던 송 정산(宋奎 鼎山 1900-1962)의 교화 사례를 중심으로 마음공부 상담의 일단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무조건적 수용이다. 무조건적인 수용의 태도는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동시에 또한 훌륭한 자질이다. 내담자에게 무조건적인 수용의 경험은 자기 긍정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상담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실시품5장】 한 제자 성행(性行)이 거칠어서 출가한 지 여러 해가 되도록 전일의 악습을 도무지 고치지 못하므로, 제자들이 대종사께 사죄기를 <그는 비록 백년을 법하에 두신다 하더라도 별 이익이 없을 듯 하오니, 일찍 돌려 보내시어 도량(道場)의 풍기를 깨끗이 함이 좋을까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그가 지금 도량 안에 있어서도 그와 같으니 사회에 내 보내면 그 장래가 더욱 어찌 되겠는가. 또는 사회와 도량을 따로 보는 것은 소송의 생각이요 독선의 소견이니, 큰 견지로 본다면 사회의 부정이 곧 도량의 부정이요, 도량의 부정이 곧 사회의 부정이라, 도량의 부정만을 제거하여 사회에 옮기고자 하는 것이 어찌 원만한 일이라 하리요. 무릇 불법의 대의는 모든 방편을 다하여 끝까지 사람을 가르쳐서 선으로 인도하자는 것이어늘, 만일 선한 사람만 상대하기로 한다면 그 본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대들은 가르쳐서 곧 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미리 미워하여 버리지 말고 끝

26) 박정훈, 앞의 책, 제 1편 제 10장 44.

까지 최선을 다하되, 제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나간다면이어나와 그렇지 아니하면 다 같은 불제자로 함께 성불할 인연을 길이 놓지 말게 할지이다.> 27)

이렇게 타일러 그대로 용서하게 하였다. 당시의 도덕적 윤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상상을 초월한 용서와 수용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잘못을 저지른 어린 자식을 포근히 감싸주는 것과같이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이다.

【실시품7장】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에 창부 몇 사람이 입교하여 내왕하는 지라 좌우 사람들이 꺼리어 사퇴기를 <이 청정한 법석에 저러한 사람들이 내왕하오면 외인의 치소가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오니, 미리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어찌 그리 녹록한 말을 하는가. 대개 불법의 대의는 항상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제도하는 데에 있거니, 어찌 그들만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리요. 제도의 문은 도리어 그러한 죄고 중생을 위하여 열렸나니, 그러한 중생일수록 더 반가이 맞아 들여, 그 악을 느껴 스스로 깨치게 하고, 그 업을 부끄러워 스스로 놓게 하는 것이 교화의 본분이라, 어찌 다른 사람의 치소를 꺼리어 우리의 본분을 저버리겠는가. 또는 세상에는 사람의 고하가 있고 직업의 귀천이 있으나, 불성에는 차별이 없나니,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다만 그러한 사람이 내왕한다 하여 함께 배우기를 꺼려한다면, 도리어 그 사람이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니라.>

둘째, 근기(根器)따라 대인 응접이다. 상담 면접을 할 때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자연스럽게 상대해야 한다. 소태산의 경우 그는 자기의 감정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순수한 감정으로 상대방을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응접하였다.

【실시품24장】대종사 하루는 한 제자를 크게 꾸짖으시더니 조금 후에 그 제자가 다시 오매 바로 자비하신 성안으로 대하시는지라,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 연유를 묻자오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그가 끄리고 있는 사심(邪心)을 부수기 위하여 그러하였고, 이제는 그가 돌이킨 정심(正心)을 복돋기 위하여 이러하노라.>

또한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응접법으로 어린이의 천진함이 장유롭고 진

실하게 드러나도록 배려하였다. 조실에 인사 오는 어린이에게는 과자를 준다든지 인사 잘하는 어린이에게는 칭찬으로 격려하여주기도 하였다. 항상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친절할 어른으로 인상깊게 간직되도록 하였다.

때로는 제자들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지도 방안을 베풀 때에도 그 근기에 맞게 교화하였으니, 모든 제자들이 각각 자기만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사랑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는 근기에 알맞는 대인 응접으로 누구나 한번 만난 사람은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찾아왔을 때 민족을 위한 그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니 다음과 같이 감탄하였다.

【실시품45장】안도산(安島山)이 찾아온지라, 대종사 친히 영접하사 민족을 위한 그의 수고를 위로하시니, 도산이 말하기를 <나의 일은 판국이 좁고 숨씨가 또한 충분하지 못하여, 민족에게 큰 이익은 주지 못하고 도리어 나로 인하여 관련들의 압박을 받는 동지까지 적지 아니하온데, 선생께서는 그 일의 판국이 넓고 운용하시는 방편이 능란하시어, 안으로 동포 대중에게 공헌함은 많으시면서도, 직접으로 큰 구속과 압박은 받지 아니하시니 선생의 역량은 참으로 장하옵니다.> 하니라.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형성된 상호 신뢰와 존경의 분위기는 가장 이상적인 상담관계라고 볼 수 있다. 소태산은 근기에 맞는 대인 응접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담관계를 유지하였다.

셋째, 감화력이다. 소태산은 교화하는 사람은 항상 저편을 심복으로 감화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제시대 때 형사 한 사람이 경찰 당국의 지령을 받아 소태산과 교단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해를 총부에서 머무는데, 그 사람을 챙기고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제자나 다름없이 하였다. 그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매양 한결같이 챙기고 사랑하더니 그가 드디어 감복하여 입교하였고, 그 후로 교단의 모든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실시품12장】형사 한 사람이 경찰 당국의 지령을 받아, 대종사와 교단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해를 총부에 머무르는데, 대종사 그 사람을 챙기고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제자나 다름 없이 하시는지라, 한 제자 여쭙기를 <그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도다. 그 사람을 감화시켜 제도를 받게 하여 안될 것이 무엇이리요.> 하시고, 그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매양 한결같이 챙기고 사랑하시더니, 그가 드디어 감복하여 입교하고 그 후로 교중 모든 일에 많은 도움을 주니 범명이 황이천(黃二天)이러라.

이러한 소태산의 감화 능력에 대해서 대중경 실시품46장에 능(能)이 없는 중에 능하지 아니함이 없고, 앎이 없는 중에 알지 아니함이 없어, 중생을 교화함에 덕이 건곤(乾坤)에 승하고, 사리를 통관함에 혜광이 일월보다 밝다고 하였다.

【전망품10장】대중사 서울에 가시사 하루는 남산 공원에 소요하시더니, 청년 몇 사람이 대중사의 위의(威儀) 비범하심을 뵈옵고, 와서 인사하며 각각 명함을 올리느니라 대중사 또한 명함을 주시었더니, 청년들이 그 당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던 모 신흥 종교에 대한 신문의 비평을 소개하면서, 말하기를 <이 교(敎)가 좋지 못한 행동이 많으므로 우리 청년 단체가 그 비행을 성토하며 현지에 내려가서 그 존재를 박멸하려 하나이다.>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그 불미한 행동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 청년이 사죄기를 <그들이 미신의 말으로써 인심을 유혹하여 불쌍한 농민들의 재산을 빼앗으니, 이것을 길게 두면 세상에 나쁜 영향이 크게 미칠 것이옵기로 그것을 박멸하려 하는 것이옵니다.>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뜻은 짐작이 되나 무슨 일이든지 제 생각에 한 번 하고 싶어서 죽기로써 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려도 되지 않을 것이니, 무슨 능력으로 그 교의 하고 싶은 일을 막을 수 있으리요.> 청년이 여쭙기를 <그러면 그 교가 박멸되지 아니하고 영구히 존속될 것이라는 말씀이옵니까.>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은 다른 사람의 굳이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막지는 못한다는 말이요, 그 교에 대한 존속 여부를 말한 것은 아니나, 사람마다 이로움은 좋아하고 해로움은 싫어하는데, 서로 관계하는 사이에 항상 이로움이 돌아오면 길이 친근할 것이요, 해로움이 돌아오면 길이 친근하지 못할 것이라, 정도(正道)라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해로운 것 같으나 필경에는 이로움이 되고, 사도(邪道)라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로운 것 같으나 필경에는 해독이 돌아오므로, 그 교가 정도이면 아무리 그대들이 박멸하려 하여도 되지 않을 것이요, 사도라면 박멸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서지 못하게 되리라.>

【전망품11장】그 청년이 다시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이라야 이 세상이 길이 잘 교화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이까.>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오직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리라. 가령, 큰 들 가운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 방법도 잘 알고 일도 또한 부지런히 하여 그 수확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다면, 온 들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연히 본받아 갈 것이나, 만일 자기 농사에는 실적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만 권한다면 그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은 물론이니, 그러므로 나는 늘 말하되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곧 남을 교화함이 된다 하노라.> 청년이 사죄기를 <선생님께서 그러한 통달하신 법으로 세상을 교화 하시거니와, 그 교는 좋지 못한 행동으로 백성을 도탄(塗炭) 가운데 넣사오니 세상에 없어야 할 존재가 아니오니까.>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그 교도 세계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대들도 곧 세계 사업을 하고 있나니라.> 청년이 또 여쭙기를 <어찌하여 그 교가 세계 사업을 한다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교는 비하건대 사냥의 물이꾼과 같나니 물이꾼들의 물이가 아니면 포수들이 어찌 그 구하는 바를 얻으리요. 지금은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해야 할 시기인바 세상 사람들이 그 형편을 깨닫지 못하고 발원 없이 깊이 잠들었는데, 그러한 각색 교회가 사방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의 잠을 깨우며 마음을 일으키니, 그제야 모든 인재들이 세상에 나서서 실다운 일도 지내보고 헛된 일도 지내보며, 남을 둘러도 보고 남에게 둘러기도 하며 세상 모든 일의 허실과 시비를 알게 되매 결국 정당한 교회와 정당한 사람을 만나 정당한 사업을 이룰 것이니, 이는 곧 그러한 각색 교회가 물이를 해 준 공덕이라, 그들이 어찌 세계 사업자가 아니라 하리요.> 청년이 또 여쭙기를 <그것은 그러하오나 저희들은 또한 어찌하여 세계 사업자가 된다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모든 교회의 행동을 보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세상에 드러내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또한 비을 주장하므로, 누구를 물론하고 비난을 당할 때에는 분한 마음이 있을 것이요, 분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새로 정신을 차려 비난을 면하려고 노력할 것이니, 그대들은 곧 세계 사업자인 모든 교회에 힘을 도와주고 반성을 재촉하는 사업자라, 만일 그대들이 없으면 모든 교회가 그 전진력을 얻지 못할 것이므로 그대들의 공덕도 또한 크다 하노라.> 청년들이 감복하여 절하고 사퇴기를 <선생님의 말씀은 두루 통달하여 하나도 막힘이 없나이다.>

정산의 면접 상담의 특징도 대중의 기운을 돌리는 감화력이었다.

그는 교무들에게 가르치기를 <대중을 교화할 때 너희들같이 오래도록 많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견디겠는가.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의 심기를 먼저 알고 한 말로써 감화를 시켜야한다.> 는 것을 강조하였다.

조실에 계실 때 한 제자 들어오니 그 얼굴을 보시고 오른손을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자타 증애의 한계를 벗어나야 불보살이 된다.> 이 말씀에 그 제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3개월 동안 불불던 증오심이 이로부터 녹아났다 하니 이것은 무언중에 업력을 녹여주시는 도력이 이와 같았다.²⁸⁾

법력에 바탕한 감화력이나 설득력은 일반적인 상담론에서 말하는 기술적 감화나 논리적 설득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이것은 상담 기법으로 쉽게 논할 수 없는 철저한 수행과 인격 관리를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는 인격의 힘이요 교화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8) 박정훈, 《한물안 한이치에》 제7장 51, 원불교 출판사, 1982.

넷째, 마음공부로 교화이다. 소태산은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두루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고 하였고, 나아가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 한 마음 밝히는 것을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우리에게는 누구나 불성이 있으니 각자의 자성불을 회복하여 부처님이 되고 원만한 인격을 완성하자고 하였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만유가 다 부처님이니 일마다 불공하여 사실적으로 복락을 구하고 용심법으로 불법을 활용하는 활발이 되고 산부처가 되라고 가르쳤다. 불법과 생활, 생활과 공부를 모두 하나로 보고 실존적 삶의 현장에서 성불제종의 서원을 향한 오롯한 공부심으로 궁극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공부길을 교리로 밝혀주었다. 다양한 교리 정신과 수행 실천의 구체적인 덕목들은 앞으로 교화상담 기법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수양 과목인 좌선 염불 등은 몸과 마음 간에 잠재된 긴장을 해소하고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탁월한 효과가 있다.

사리연구 과목인 경전 연마와 강연(講演)·회화(會話) 등은 가치관의 타락과 도덕적 혼란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물질문명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치료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취사(取捨) 과목인 주의(注意)·조행(操行)·정기일기·상시일기 등도 결단적 실천력이 나약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태산의 수제자인 정산의 상담원리도 마음공부에 있었다. 그러므로 <마음공부 잘하여 새 세상의 주인되자>는 정산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표어가 되었다.

그는 교당 봉불식에서 설법하기를 <우리는 마땅히 저 표준의 일원상을 불안하고 신앙함으로 인하여 참 일원상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일원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일원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 일원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함으로써 다같이 한량 없는 복락과 한량 없는 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즉 일원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일원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 일원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일되게 하는 것을 마음공부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좋은 날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나의 마음에 탐 진치가 사라지고 청정하고 밝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날이 길일이요, 내 마음에 독소를 지니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손해를 입힌 날이 흉일이다.>

“도깨비는 부자 방망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 부자 방망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 마음만 잘 찾아 이용하고 보면 곧 부자 방망이를 얻은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모든 성현은 이 마음을 잘 찾아 잘 이용하였으므로 여의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마음을 잘

찾아서 잘 이용하자. 그러면 바로 부자 방망이를 얻은 것이 될 것이다.” 29)

생활 속에서 마음공부는 불공으로도 설명된다.

한 사람이 이정은(李正恩)에게 섭섭함이 있어서 없는 허물을 짐짓 말하고 다닐 때 정은이 조실에 들어오니 말씀하셨다.

“어쨌든지 미운 생각 갖지 말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기고 해서 따뜻하게 불공을 드러라.”

“그런 억울한 말을 듣고 참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불공까지 하겠습니까?”

“바늘 구멍으로 황소 바람 들어온다고 하지 않더냐. 작았을 때 그 씨앗을 없애 버려야 한다. 명심하고 꼭 실천하여라.”

정은이 이 말씀을 받들어 불공을 잘 하였더니 상극이 상생으로 돌아서 서로 심복 동지가 되었다.

소태산과 정산의 상담 치료자로서의 역할은 도의 완성이라는 서원을 세우고 끊임 없이 정진하게 하여, 늘 새 사람되도록 마음공부하는 길로 안내하는 교화자였다. 상담론에서 상담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내담자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잠재해 있다고 보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스로 서원을 세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공부 방법을 밝혀주고 그 공부길로 인도하여 교화하였던 소태산과 정산의 역할은 인생과 마음공부 상담의 새로운 장을 밝게 열어주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공부하는 도인의 인격과 사랑이다. 일반적으로 도인이란 도통하여 깨달은 사람을 말한다. 도인의 경지는 깨달은 도인이 아니면 진정으로 말할 수 없고 참으로 알 수 없다. 도인의 경지는 말이 필요 없는 세계이다. 그야말로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세계이다. 도인이 있다는 그 자체가 희망이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도인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비유하여 말하자면 부모를 찾아 헤매던 고아가 문득 그 부모를 찾았을 때, 그 아이의 기쁨과 행복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는 것이다. 그 아이의 천진한 눈빛과 미소, 숨소리와 속삭임 등은 그 표정을 보고 읽을 수 있는 사랑스런 엄마의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과 같다. 사랑스런 아기와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아니면 그 아이의 몸짓을 참으로 느끼고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도인의 인격은 상식적인 안목으로 생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라고 말할

29) 박정훈, 앞책, 제2장 42.

수 있다. 소태산의 일화들을 볼 때 그의 모든 제자들은 소태산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였고 만족하였으며, 모든 어려운 일들이 막힘 없이 해결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V. 결 론

지금까지 마음공부와 상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 발표의 목적은 각종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공부와 상담을 통하여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째, 마음공부와 내담자 중심의 비지시적 상담 원리는 서로 그 근본 바탕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상담 전개 과정에서 내담자가 잠재적 자아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신뢰함으로써 긍정적 자아를 발견하는 진실한 자기자신으로 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즉 자기 자신의 불성을 발견하여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나아가서 내가 곧 부처라는 자기의 진실을 회복하면 모든 문제는 스스로 해결될 수 있다는 마음 공부 과정과 같다.

둘째, 상담 과정으로써 마음공부다. 성공적인 상담은 자아개념의 변화라고 할 때, 교화(敎化)의 의미와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교화의 의미는 마음공부를 통하여 생활변화 인격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성(自性)을 계발하여 견성(見性)할 수 있듯이, 상담 과정을 통하여 자기자신의 긍정적인 진실한 모습을 찾도록 학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 과정은 스스로 하게 하는 학습 과정인 마음공부를 통하여 더욱 촉진시키고 안으로부터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상담 학습이나 마음공부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자기의 긍정적인 참 모습을 깨달아 알게되면 모든 부적응의 문제들은 순리로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수도나 정신치료의 공통점은 깨달음 즉 마음공부를 통해서 착각과 투사를 해소함으로써 갈등을 없애며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격이 인격을 치료하는 것이다.

셋째, 상담자의 자질과 마음공부다. 상담자는 자기자신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으므로 상담자 자신이 본질적으로 효과적인 도구이다. 이에 대해 Adler는 말하기를 <치료 기술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 Laing은 인도에서 수도하고 돌아온 후 상담자의 최고의 경지에 대해서 도인은 무위(無爲)로서 그저 존재함으로써 치료가 된다고 하였다. 같은 이론이나 방법 기술을 사용해도 상담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견 없는 상담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격완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음공부를 통한 도와 덕의 추구에 있다. 생활이 공부이고 불공이며, 삶 자체는 마음의 빛으로 반사된 거울이니, 상담자의 자질과 마음공부는 실로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원불교 교전》, 원불교출판사
- 이죽내, 〈노장사상의 수도와 정신 건강〉, 정신치료학회 제1차 학술 연찬회 논문, 2004.
- 이동식, 〈수도와 정신치료〉, 정신치료학회 제1차 학술 연찬회논문, 2004.
- 박성수·정원식, 《카운셀링의 원리》, 교육과학사
- 전찬화, 대학카운슬러 연구협의회, 《상담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 출판사
- 김부길, 대학카운슬러 연구협의회, 《상담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 이동식, 〈상담의 동양적 접근〉, 대학카운슬러 연구 협의회, 《상담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 출판사
- Rollo May, 이봉우 역, 《카운셀링의 기술》, 분도출판사
- Jolande Jacobi, 홍성화 역, 《융심리학》, 교육과학사, 1885,
- 박정훈, 《한울안 한이치에》, 원광출판사
- 소태산 사상 연구원, 《마음공부 잘하여 새 세상의 주인 되라》, 상. 2000
- 김성장, 〈원불교의 종교적 기능 고찰〉, 《원불교사상》 3집. 1979.
- 김성장, 〈원불교의 종교관〉, 《원광대학교 논문집》 제23-1집, 1989
- 김성장, 〈원불교 仁果論〉 해석의 諸問題〉, 《원불교사상》 제 13집,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1989
- 김성장, 〈사회병리현상과 종교의 중심 기능〉, 《인류문명과 원불교사상》, 1991
- 김성장, 〈마음공부와 상담〉, 《학생지도연구》 제 12호, 원광대 학생지도 연구소, 1999
- 김성장, 〈정산종사와 교화 상담〉, 《원불교사상》 15집, 1992.
- 김성장, 〈원불교 교화의 개념과 교화정책 결정에 관한 문제〉, 《한국종교사상의 재조명》, 1993.
- 김성장, 〈소태산의 교화상담 원리와 실제〉, 《원불교사상》 17. 18 합집. 1994.
- 김성장, 〈21세기 종교의 기능과 원불교〉, 《21세기 불교의 전망과 과제》, 17회 국제불교 문화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1.
- 김성장, 〈마음공부 상담론〉, 불교학 결집대회 발표 논문. 2002.
- 김성장, 〈대학의 불교교육에 있어서 신앙 수행 깨달음의 문제〉, 18회 국제불교 문화 학술회의 발표 논문,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7집. 2004.
- 김성장, 〈원불교 마음 공부 개념에 대한 연구〉,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교화연구소 합동 연구 발표 논문. 2004

C. Jung,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Hqrvest books, 1933.

원고접수: 10월 25일 1차심사: 11월 15일 게재승인일: 12월 3일

연구자 소개

① 전공: 원불교학 / 소속: 원광대학교 교수

② 관심영역: 종교의 기능, 종교수행, 원불교 사상

③ 주요논저: 〈소태산의 일원주의와 S.Radhakrishnan의 보편종교〉, 〈원불교
인과론 해석의 제문제〉, 〈21세기 종교의 기능과 원불교〉

④ E-mail: dungmo@wonkwang.ac.kr

Pursuit of mind and counsell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Won-Buddhistic counseling-

Kim, Sung-Jang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A technique-oriented type of counseling has found it difficult to cure the corrupting of minds of modern people as well as Christian counseling, well-known as a type of religious counseling. It starts from assumptions different than Tao-oriented types of counseling, for the former is a monotheistic religion.

The "counseling through the pursuit of mind" is a theory of counseling based on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Buddhistic reasoning. Recently, Won-Buddhists have had several cases of successful treatment through its method, raising attention in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possibility of helping and curing people by "counseling through the pursuit of mind" who have mental pain caused by various forms of stresses.

The theory can be recapitulated as the following:

Firstly, non-directive, patient-oriented counseling and the pursuit of mind have the same base in principle. During counseling patients find the latent and positive form of self and by accepting and trusting his current self. This process is similar to that of the pursuit of mind. For both processes, one can solve his own problems by looking for his inner Buddha Nature, by finding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Buddha, and by restoring himself as none other than a Buddha.

Secondly, the pursuit of mind can be the main part of the counseling. Successful counseling brings a change in self-consciousness, and so it is equal to "religious enlightenment," which is meant to achieve incessant changes in their personality and behaviors.

As everyone can reach the True Nature by finding his own Original Nature, he can also learn to seek his positive and true self through the counseling process. The process can be sped up by the pursuit of mind, which is a self-mastering process, bringing changes in personality

All the problems of misadaptation disappear in itself when one finds his own

positive self through counseling and the pursuit of mind. What is in common between the search for truth and mental treatment is that both dispel, through studying one's own mind, the illusions and projections to remove the dilemmas and to seek for mental growth. At the same time, a man of enlightened personality can cure others.

Therefore, a counselor should be an excellent and qualified pursuer. He can only act through himself, so he can be the most effective tool for counseling. R. Laing, who finished his course in India, mentioned that at the highest stage of counseling a counselor can cure a client by doing nothing and by existing only. Different counselors may get different results from their patients with the same theory and techniques. A good counselor needs incessant efforts to accomplish a perfect personality to improve his ability and to get rid of prejudice within. He should try to reach the morality and the tao through the pursuit of mind.

Key words: Pursuit of Mind, Won-Buddhistic counseling, counseling through the pursuit of mind, non-directive counseling, change in self-consciousness.